Goahead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9 East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in USA
1-201-852-3600 / 1-917-530-1991 / gtstheology@gmail.com

교회론

교회론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올로기아'(그리스어: 'Εκκλησιολογία)이다. 라틴어와 영어의 교회론을 의미하는 단어도 헬라어에서 유래했다.
기독교 신학의 조직신학 분야의 연구 분야로 교회의 본질을 찾는 학문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구원의 역할, 교회의 조직, 치리, 그리고 예배와 관련된 기독교 교회를 연구하는 것이다.
조직신학에서 실천신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분야로 실천신학 분야인 목회신학과 예배학, 교회행정, 선교학 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어원

교회론(그리스어: 'Εκκλησιολογία)의 어근은 "회중, 교회"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 [ekklēsia])와 "말", "이해", "논리"를 뜻하는 '로기아'(-λογία)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과학이나 지식체의 이름에 사용하는 결합 용어이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한문으로는 敎會 라고 쓰지만 그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도 없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만이 아니며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원어에서 보면 ekklesia 라고 하는 헬라말의 의미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란 의미다. 구약에서도 Kahal 이라는 히브리말은 “부른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 좀 더 뜻이 명확해진다.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교회’란 건물을 말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훌륭한 건물이 있다 해도 그 안에 예배하는 성도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반면에 건물이 없고 땅속이나 야외에서 모인다 해도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라는 의미다. 행 11 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크리스챤” 이라고 했다.

구약에서 kahal 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을 말했다. 신약에서의 ekklesia 라는 말은 전에도 언급한대로 세상에서 특별히 빼내어 불어냄을 받았다는 말이다. 마치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처럼 세상에서 세상사람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어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다.

교회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성도들이 모인 특정한 장소를 말하기도 한다. (행 5:11, 행 11:26, 고전 11:18, 고전 14:19, 28, 35.) 교회는 어떤 개인의 집에서 모인 성도의 무리들을 가르친다. 옛날에는 부유한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했다. 가령 롬 16:5, 23, 고전 16:19, 골 4:15, 빌레몬서 2 절 등을 보시면 알 수 있다. 교회는 이 땅이나 하늘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신비스럽게 연합되어 있는 모든 믿는 성도들을 통틀어서 교회라고 한다. 가령, 엡 1:22, 엡 3:10, 21, 엡 5:23-25, 골 1:18, 24

Goahead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9 East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in USA
1-201-852-3600 / 1-917-530-1991 / gtstheology@gmail.com

- 교회를 다른 말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가령, "주의 몸"이라고 한다. 고전 12:27, 엡 1:23, 골 1:18.
- 교회를 "성령의 전" 고전 3:16, 벧전 2:5,
- 교회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갈 4:26,
- 교회를 "거룩한 곳" 사도행전 7:33 절
- 교회를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2 절
-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딤전 3:15

가. 교회의 정의

① 루터파: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회중(congregatio sanctorum)'이며, '부름 받은 사람들의 회중(congregatio vocatorum)'이다.
② 개혁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비적 영적 통일체로 정의한다. 그리고 유형교회(조직체로서의 지상 교회로서 현세적이며 항상 개혁이 필요함)와 무형교회(유기체로서의 천상의 교회로서 우주적이며 완전함)로 구분한다. 무형교회가 참 실체이나 유형교회도 중요하다.

나. 나.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

① 로마가톨릭: 외부적 유형적 조직체로서의 교회에 강조점을 둔다. 교황청을 중심으로 가시적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다.
② 동방 정교회: 가시적 측면과 불가시적 측면을 모두 강조하나, 외적 조직체에 더 강조점을 둔다.
③ 정통개신교회: 본질은 행정조직체에 있지 않고 성도의 교통(Communio sanctorum)에 있다고 본다.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인 사람들의 생명적 유기체 연합이다. 무형교회를 더욱 중시한다

다. 다. 교회의 속성

① 통일성(Unity)
로마가톨릭의 경우 전세계에 존재하는 자기들 교회의 외형적 행정 조직에서 그 통일성을 찾는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신자들을 몸으로 하는 유기적 통일성에 강조점을 둔다(엡 1:22-23).
② 거룩성(Holiness)
로마가톨릭의 경우 교리, 교훈, 예배 의식, 권징 등 교회의 외적 요소들에서 거룩성을 찾는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존재이므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거룩하다고 여기며 내면적 영적인 의미에서 거룩을 찾는다(벧전 2:9).
③ 보편성(Catholicity)
로마가톨릭의 경우 외형적 조직에서 보편성을 찾는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고후 5:19), 복음 전파(마 28:19-20), 구원받은 자들의 시공을 초월한 보편성에서 교회의 보편성을 찾는다. 곧 무형교회적 요소에서 보편성을 찾는다.
④ 사도성(Apostolicity)
로마가톨릭의 경우 로마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라며 자기들의 사도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개신교회에서는 교회가 사도들의 교훈을 그대로 따름을 통해 사도성을 지닌다고 여긴다(엡 2:20).

⑤ 생명성(Livingness)

교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요(요 11:25), 구성원들은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고(요일 5:11-12),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성이 있다.

⑥ 무오성(Infallibility)

로마가톨릭은 교황의 교시(敎示)가 무오하므로 자기네 교회 또한 무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무형교회는 무오하다고 보지만 유형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로 이해한다

라. 교회의 세 가지 표지

① 말씀 전파: 말씀 전파의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세우기 위함이다. 신약의 서신서들도 이런 목적으로 기록되었으며,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다. 또 한편으로는 복음 전도를 위한 말씀 전파이다. 불신자들을 향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의 특별한 임무이다(막 16:15).

② 성례의 바른 시행: 로마가톨릭교회는 7 성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신교회는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인정한다. 성례의 적절한 시행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더한다.

③ 권징: 신자들이 범과할 때 이를 적절히 권징하지 않으면 교회는 거룩성을 상실할 수 있다. 현대교회에서 거의 상실되다시피 한 것이 이 부분인데, 그 결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당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적당한 권징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마. 교회의 기능

① 예배: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림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다(히 10:25, 고전 14:26).

② 교육: 신자들을 주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야 한다(벧후 3:18).

③ 덕 세움: 신자들 간에 덕을 세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야 한다(살전 5:11).

④ 선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행 1:8).

⑤ 교제: 성도들 간에 화합과 교제가 온전히 이뤄져야 한다(행 2:42).

⑥ 구제 및 사회봉사: 세상의 그늘진 곳을 돌아보고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마 5:16, 롬 12:8, 엡 4:28)

바. 세례 (Baptism)

1) 세례의 정의

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서약하고 인치는 행위이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죄 씻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증표이기도 하다.

로마가톨릭의 경우 세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그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2) 세례의 형식

① 침례파: 성경의 어원적 해석을 중시하여 사람이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침수례만을 인정한다. 침수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잘 표현해 준다는 것이다.

② 개혁파의 견해: 세례의 본질을 "씻어 정결케 한다"로 본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침수, 뿌리는 것, 쏟는 것 등을 모두 인정한다.

3) 유아세례

정통교회 안에서도 침례파는 유아세례의 정당성을 부정한다. 왜냐하면, 유아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으며, 신약에서 유아세례를 명한 곳이 없고 선례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침례파를 제외한 여타의 개신교회는 대부분 유아세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 논리적 근거는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대체되고 유월절은 성찬으로 대체되었다고 여기는 점에 있다.

사. 성찬(Eucharist, 성만찬)

성찬에 관한 여러 견해들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화체설(Transubstantiation)

로마가톨릭의 공식 교리이다. 사제가 성별의 기도를 하고 나면 성찬의 요소들(빵과 포도주)이 그리스도의 실체(살과 피)로 변화한다고 하는 주장이다. 성찬 후 남은 빵을 성체라 하여 숭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찬 시 빵만 회중에게 제공하고 포도주는 사제가 대표로 모두 마신다. 동방정교회도 화체설을 따르지만 회중에게 떡과 포도주를 모두 제공한다. 개신교회는 화체설을 거부한다.

② 기념설(Memorialism)

쯔빙글리가 주장한 이론으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 22:19)"고 하신 말씀처럼 성찬은 하나의 기념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오늘날 침례교회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③ 공재설(consubstantiation)

루터의 견해로서 쯔빙글리와 로마가톨릭의 중간 입장이다. 성찬의 요소들(포도주와 빵)은 변화하지 않으나 그리스도는 참으로 현존하신다는 입장이다. 오늘날 루터교회의 입장이다.

④ 영적임재설(Spiritual Presence)

칼빈의 주장이다. 쯔빙글리와 루터의 중간 입장이다. 그리스도의 현존은 있으나 실체로서의 현존이 아니라 그의 권능과 효험이 신앙을 통해서 현존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효험주의(virtualism)라고도 한다. 오늘날 많은 정통교회들이 채택하는 이론이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Goahead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9 East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in USA
1-201-852-3600 / 1-917-530-1991 / gtstheology@gmail.com

개신교와 천주교의 입장이 다르다. 천주교회는 교회를 외적인 유형 기관이라고 주장하는데 알아 둘 것은 천주교에서는 외적인 유형교회가 모든 믿는 자를 포함한 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교회" 와 "배우는 교회" 등 둘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교회란 교황을 위시하여 추기경. 대 주교, 신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교황은 사도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하여 오늘까지 계속해서 일사불란하게 교황권이 계승되어 온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배우는 교회란 일반 성도들을 말하며 이들은 "가르치는 교회" 즉 교회 지도층에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교회 역사를 잠시 더듬으면, 정통신학자 Augustine 으로 부터 Thomas Aquinas 의 자연신학을 통해서 천주교의 교리가 나오게 되었고, John Wycliffe 나 Jan Hus 그리고 Martin Luther 나 John Calvin 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나오게 되었다.

개혁주의는 천주교의 부산물이 아니다.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를 성경 적인 신앙으로 바로잡으려는 운동이 16 세기에 전 구라파에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 갔던 종교 개혁이었다. 천주교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일반 성도들을 같은 반열에서 생각하지 않고 엄격하게 분리한다. 한편,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에서는 "교회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스럽게 연합되어 있는 무형의 유기적 영적 공동체" 라고 가르치고 있다.

1. 교회의 다양한 성격
가. 전투적교회와 승리의 교회
지상의 교회를 "Church Militant" 즉, "전투적인 교회" 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 땅의 성도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인 Satan 과 싸워야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돌진하는 것이 성도들이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부른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 나라에 올라가서 주님과 온전히 사귈 때의 교회인 "Church Triumph" 즉 승리의 교회와는 다르다. 하늘나라에서는 싸움은 모두 끝나 이제 싸울 일이 없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축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이므로 전투가 필요 없다. 그런데 그런 전투적인 교회의 개념이 요즘은 점점 사라져 가고 무기를 던지고 방심하는 생활로 변해 버린 것이 사실이다.
나.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또한 교회를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구분해서 생각한다. 무형교회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교회는 본질상 신령한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 얻은 성도이고 누가 아니지 우리의 육안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을 통틀어 무형교회 라고 부른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 요리문답 제 61 문에,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면 모두 구원을 얻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면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형교회란 거듭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이 무형교회는 교회의 성례 식 때나 말씀 선포 시에 신앙고백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는 공동체로서 남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므로 유형교회의 면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항상 평행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이 유형교회에 들어 있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이 말은 오늘의

Goahead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9 East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in USA
1-201-852-3600 / 1-917-530-1991 / gtstheology@gmail.com

교회가 진실한 성경 적인 성도를 수용하기를 기피한다는 말이며, 또한 신실한 성도가 출석할만한 참된 교회가 없다는 말이다. 교회는 많지만 참으로 성경 적인 교회는 희귀하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기보다는 청중들의 귀를 즐겁게 해 주려는 데 더욱 신경을 쓰다 보니 참 교회의 모습은 살아지고 참 성도는 갈 길을 못 찾아 헤매게 된다는 말이다. 특히 요즘에 바로 믿는 사람, 즉 무형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유형교회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많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2. 교회의 속성
교회의 속성은 무형교회에 해당하는 말인데 천주교에서는 반대로 전적으로 유형교회의 속성을 말한다. 내면보다는 외면을 더 중요시하는 천주교의 신학에 기인한다.

가. 교회의 통일성:
천주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천주교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cumenical 운동에 앞장선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유형교회에서의 하나됨을 강조한다. 천주교는 다양하게 많은 교파들과 공조하면서 선교를 펼쳐 나간다. 가령 1993 년에 만들어진 이른바 ECT,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라는 단체가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원래 천주교의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이 선교 기관에는 개신교 목사들이 많이 가입되어 교리를 초월하여 선교사업에 천주교와 공조하고 있다. 그런데 천주교의 칭의의 개념과 개신교의 개념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서로 다른데 어떻게 이런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무시하면서 선교에 공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그래서 Colson 나 Packer 같은 개신교 목사는 아직도 남아서 활동하고 있지만 John White 같은 개혁파 계통의 목사님은 가입하였다가 후에 즉시 탈퇴한 것이다. 교리를 헌 신짝 같이 버리는 풍조가 요즘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

나. 교회의 거룩함:
천주교는 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겉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강조하여 각종 예배의식이나 도덕적 관념에서 외면에 신성을 강조하는 반면, 개신교는 교회라는 기구보다는 개인 성도들의 마음의 거룩함을 강조한다. 개신교는 성결한 생활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갖고 마음의 생각을 거룩하게 가지려고 노력한다.

다. 교회의 보편성
천주교는 사도시대로부터 계승되어 왔다는 사실과 또 교회가 세계에 가장 많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강조한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런 건물보다 내적인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에 속한 성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천주교는 외적인 면에 신경을 쓰고 개신교는 내적인 면을 강조하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다른 태도를 볼 수 있다.

Goahead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9 East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in USA
1-201-852-3600 / 1-917-530-1991 / gtstheology@gmail.com

교회의 세 가지 특징:
참 교회라면 다음의 세 가지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의 교회는 그런 구별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그 세 가지 특징이란 다음의 세 가지다.

1. 말씀의 선포:
참 교회는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의 선포가 없는 교회 이를테면 Quaker 교파 같은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다고 할 수 있다. 말씀선포가 있다 해도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면 또한 참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요 8:31-32, 47, 요 14;23, 요일 4:1-3 를 참고할 수 있다. 지상의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다 해도 기독교의 근본적인 핵심 교리는 바로 전해져야 하며, 성경을 가장 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인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고, 이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이라고 할 것이다.

2. 성례의 집행:
말씀이 선포되어도 성례가 없으면 참 교회가 아니다. 성례는 2 가지인데 세례와 성찬이다. 이 두 가지 성례는 모두 말씀과 분리될 수 없다. 성례 식은 반드시 말씀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례는 반드시 합법적인 성직자가 집례할 것이며 반드시 믿는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다. 마태 28:19, 마가 16:16, 행 2:42, 고전 11:23-3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천주교에서는 일곱 가지 성례를 주장한다. 영세(세례), 고해, 견진. 미사, 혼인, 신품, 종부 등이다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28 장과 고린도전서 11 장에서 세례와 성찬 등 두 가지 성례만 명령하고 있다. 한편 기독교 교파라고 하면서 성례가 없는 교단도 있다. 성경대로 시행하지 않는 증거다.

3. 권징의 시행:
교인이 잘 못하면 권징이 있는가? 오늘의 교회는 말씀선포나 성례식이 있다고 해도 권징이 바로 되어 있는 교회는 거의 없어서 이 점이 가장 약점이다. 권징은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교리의 오도를 막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을 등한히 하면 진리가 침식되고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어 버린다. 오늘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마태 18:18, 고전 5:1-5, 13, 고전 14:33, 40, 계 2:14-15 등이 교회에서 권징을 명령하고 있다.
이상에서 세 가지 교회의 특징을 보았다. 말씀의 바른 선포는 선지자의 사명이고 성례는 제사장의 직분이며, 권징은 왕의 직분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말이 바로 지식, 거룩함과의 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다. 지식은 선지자의 직분을 말하며, 거룩함은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의는 왕의 직분을 말하며 그리스도도 이 세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 선지자로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는 택함 받은 백성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승천한 후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왕의 직권으로 지상 사역에서는 자연만물이 그에게 순종했으며 지금은 하늘에서 세상을 다스리며 성도들을 다스린다.

교회의 정치 형태
① 교황정치(전제군주정치): 로마가톨릭 교회, 종교개혁의 원인이 교황권에 대한 반발이었던 만큼 개신교회는 교황정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② 감독정치(귀족정치): 초기 중세의 로마교회, 성공회, 감리교회
③ 국가교회(개교회는 국가교회의 일부, 국가전체교회의 지배를 받음): 네덜란드교회, 동방정교회
④ 에라스티안파(국가의 한 기관으로 봄, 국가의 간섭을 받음): 독일교회, 영국교회, 스코틀랜드교회, 중국 삼자교회
⑤ 회중정치(회중 중심, 교회 간 상호독립, 회중 다수결로 결정): 침례교회, 회중교회
⑥ 장로교회(대의정치): 장로교회, 개혁교회
⑦ 무교회주의 정치: 퀘이커(Quakers), 달비파(Darbyites) 등 일부 신비주의 종파들, 무교회주의는 정통 개신교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게 여긴다

교회의 체제
교회의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교파마다 다르다.

1. Quaker 교회와 Darby 교파
"교회의 정치 체제는 어떤 체제이건 간에 반드시 타락하게 되고 기독교의 정신과 위배되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정치 체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주어진 성경말씀 대신에 특별 계시를 인정하고, 사람이 만든 교회의 정치 체제 대신에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체제를 도입하고, 설교 대신에 즉석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권면한다. 여러 사람이 회동해 있다가 한 사람이 성령으로 계시를 받으면 그 말씀을 회중에게 전하는 형태의 예배다. 주어진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계시가 없다.

2. Erastus 파 교회
이들은 주장하기를 교회란 정부에 예속된 하나의 사교(社交) 기관이라고 한다. 교회의 모든 직원들은 교회를 다스릴 권리가 없으며 모든 교회 직원들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라가 교회를 다스리고, 권징을 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교 (黜敎, excommunication)하기도 한다. 이런 교파는 교회의 독립성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인 것을 부인한다. 17 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아고백서를 만들 때 이들 Erastus 파들의 방해로 상당한 고난을 당한 일을 역사에서 읽어 볼 수 있다. 이 교리는 원래가 영국의 한 의사였던 Thomas Erastus 가 주창했다 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Erastian 이라고 한다.

3. 성공회 교파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교회 관할권을 사도들의 계승자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부여 했다고 믿는다. 일반 교인들은 교회 일에 간섭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가르친다. 지금 영국 국교의 정치 체제가 여기에 속한다.

4 현재 로마 천주교
성공회와 비슷하지만 더욱 더 철저하게 주교들의 사도들의 계승자라고 믿고, 교황은 수제자 베드로의 직통 후계자로서 절대로 무오 한 지상의 교회의 머리라고 가르친다. 그리스도의 대표자이므로 교황은 교리문제를 결정짓고, 예배를 주장하고, 또한 교회의 정치를 시행 나갈 권리가 있다고 가르친다.

5. 회중교회
이것도 독립교회를 주장하는 형태다. 각 지교회는 다른 교회와 관계없이 완전히 독립되어 존재한다고 믿으며 교회를 다스리는 권리는 전적으로 교인들에게 있다. 교회의 직원은 상징적인 인물들일 뿐, 교인들의 위임한 일 이외에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18 세기에 일어났던 New England 의 제 1 차 각성운동 때 회중교회수가 상당히 많다.

6. 국가 교회
모든 지 교회는 그 나라에 있는 한 교회의 지 교회들이므로 국가가 예배를 주장하고 교리 문제나 권징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하고 대회를 소집하기도 한다. 대회를 소집한다고 해도 사건을 결정할 권한은 오로지 국가에 있다고 믿는 제도다.

7. 개혁교단 및 장로교단의 정치
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모든 권위의 근거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다.

1)유기적 의미에서.
교회는 몸으로서 모든 성도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유기적 지체들인데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영으로 교회를 통치하신다. 요한복음 15:1-8, 엡 1:10, 22-23, 엡 2:20-22, 엡 4:15, 엡 5:30, 골 1;18, 골 2:19, 골 3:11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교회의 왕으로 다스리는 권세자라는 의미에서 마태 16:18-19, 마태 23;8,10, 요 13:13, 고전 12:5, 엡 1:20-23, 엡 4:4-5, 11-12, 엡 5:23-24 등 성경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직원들을 세우시고 교회 직원들에게 필요한 권세를 주시고 그 직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항상 임재하여 계신다.

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권세를 행사하심.
그리스도는 힘으로 가 아니라 그의 말씀과 영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 모든 교인들은 무조건 그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다. 교회의 유일한 왕은 그리스도 이므로 그의 말씀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법 그 자체이며 순종할 의무가 성도들에게 있다. 교회의 모든 직원들은 이런 권세로 옷을 입었고 따라서 주님의 권세 앞에 순종해야 한다.

다.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에 권세를 부여하심.
그리스도는 그가 세우신 교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었지만 특히 임직 자 들에게 더욱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할 것은 교인들이 직원들을 선출하지만 선출된 직원들의 권세는 회중교회처럼 백성이 위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 되는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며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 통치권은 각 개 교회에 있음
각 지 교회의 통치권은 그 교회의 당 회에 있고, 그 상회인 노회나, 대회, 총회에 있다.

교회의 직원
항구직과 임시직원으로 구별할 수 있다.

1. 임시 직원:

가. 사도들:
사도들이란 12 사도와 바울을 말하는데 이들에게는 특정한 자격이 부여되어 있었는데 즉.
1).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다. 마가 3:14, 갈 1:1
2).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다. 고린도전서 9:1
3). 자신이 성령으로 감동된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었다. 고전 2:13 살전 4:8
4). 그들의 메시지를 이적과 기적으로 확증 지을 수 있었다. 고후 12:12, 히 2:4,
5). 그들의 수고함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 고전 9:1, 고후 3:2, 갈 2;8

나. 선지자:
신약에도 선지자란 말이 나온다. 행 11:28, 행 13:1-2, 행 15:32, 고전 12:10, 고전 13:2, 고전 14:3, 엡 2;20, 엡 4:11.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다 전도자:
신약에 "전도자" 라는 말이 나온다 행 21:8, 엡 4:11, 딤후 4:5 등.
빌립, 마가, 디도나 디모데가 모두 전도자에게 속한다. 사도들을 동행했다.

2. 항구직
가. 장로 Elder
행 11:30, 14:23, 15:2, 6, 22 16:5, 20:17, 21:18 등에 보면, 장로와 목사가 상호 같이 사용된다. 행 20:17, 28, 딤전 3:1, 5:17, 19, 딛 1:5,7 벧전 5:1-2 두 직분이 서로 혼동되어 사용되지만 장로는 주로 행정에 중점을 두고 목사는 교회를 돌보는 직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n Acts 11:30, 14:23, 15:2, 6, 22, 16:5, 20:17, 21:18.

나. 교사 Teacher
처음에는 교사직이 없었는데 이유는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후에 교리를 바로 가르칠 교사라는 직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엡 4:11, 딤전 5;17, 딤후 2:2. 등이 말하고 있는데 이단들이 침투하자 전문적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소 아세아 일곱 교회의 사자들은 바로 이런 교사들이 였다. 계 2:1, 8, 12, 18, 3:1, 7, 14 등.

다. 집사 Deacon
신약에 집사가 나온다. 빌 1:1, 딤전 3:8, 10, 12, 사도행전 6:1-6 에 초대교회의 첫 7 집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deacon” 은 dia, con. os 등 세 단어의 합성어로서 먼지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

3. 교회 항존직의 부르심
교회의 항존직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데 외적인 부름과 내적인 부름이 그것이다.
교회의 항존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내적인 부름이 있어야 하고 또한 외적인 부름이 있어야 한다. 내적인 부름은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말이 아니고 본인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직분을 받아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자질을 구비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적인 부름이라고 볼 수 있다. 본인이 그런 마음만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 자격도 갖추어져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외적인 부름이란 교회에서 그의 신앙과 인격적인 자질을 인정하여 그를 직원으로 선출해 주는 것들 말한다. 이런 두 가지 부름이 있어야 교회의 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이런 자격을 따지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본인이 교회에서 직원으로 봉사하겠다는 마음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 보인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성경은 많이 안다고 해도 머리로만 알뿐 심령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사도행전 6 장의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는 모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즉 믿는 도리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인격자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의 임명으로 교회의 일을 보게 되었다는 말이다. 행 6:2-6, 행 14:23 등

4. 임직과 안수
지 교회에서 직책을 부여하는 예식은 임직식과 안수 인데. 임직과 안수는 항상 동시에 행해지는 예식이다. 가령 임직을 먼저 받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에 안수받는 것이 아니다. 임직에는 안수가 따르는데 안수한다는 말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구원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어떤 분들은 안수하는 일을 구원과 연관시키려 하지만 잘 못된 생각이다. 구원은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는 정도의 안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보다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이다. 그러기에 사울 같은 사람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임직 식을 받고 기름으로 안수를 받았지만 결코 구원받지는 못했던 것이다.
세례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세례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거나 구원을 인치는 행사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이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세례는 단지 속 사람이 회개하고 거듭났을 때 그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되는 사실을 겉으로 나타내 주는 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속 사람이 중생하지 않은 상태로 세례를 받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구약 때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임직할 때 기름으로 안수하였지만 신약시대에는 행 6:6, 행 13:3, 딤전 4:14 등에서 손을 머리에 얹어 안수했다. 그러나

Goahead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9 East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in USA
1-201-852-3600 / 1-917-530-1991 / gtstheology@gmail.com

지금은 그 안수의 원래의 의미가 점점 잊혀 가고 있고 단지 하나의 의식 정도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의 직제
어떤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교회는 직제를 달리한다.
① 침례교회, 회중교회: 본래 목사와 집사만을 직제로 두고 있지만 장로도 인정하고 있다.
② 장로교회: 목사, 장로, 집사를 두며 목사와 장로들은 당회를 구성해 교회 전반의 업무를 처리한다. 중대 사안은 세례교인 전부가 참여하는 공동회 등을 통해 최종 의결한다. 장로는 치리권, 목사는 치리와 강도권(講道權)을 함께 가진다.
③ 감리교회: 감독이 최상위에 있고 감리사들이 각 지역 교구를 통괄 관리한다. 본래 감리교단 개교회에는 목사, 권사, 속장 직제만 있으나 한국은 장로와 집사직도 도입하고 있다.
④ 무교회주의: 무교회주의이므로 직제가 필요치 않다. 모두 형제, 자매로 통하곤 한다.
⑤ 기타 교단들: 위에 소개된 직제를 다양하게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장로교회 직제가 익숙한 것과 역사적 이유, 이명으로 인해 타교단에서 옮겨온 경우의 예우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교단이 장로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로교단 외의 교단에서는 장로에게 치리권을 부여하지는 않는 분위기이다. 권사는 감리교에서 남녀 불문하고 주어지던 직위인데 여성에게 장로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에서 여성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권사를 임명한다. 그것이 한국에서는 전 교단에 확산되어 오늘날의 권사직으로 정착되었다.
교회의 직제가 독특하다 해서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생소하거나 상식을 벗어난 형태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별히 그런 교회에서 기성교회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면 이단일 수 있다.

교회의 치리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관할할 치리회가 여럿이 있다. 우선 각 지 교회마다 당회가 있고, 당회가 셋 이상 모이면 노회가 있고, 노회가 셋 이상 모이면 대회, 대회위에는 총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세상적인 권력 기관과 다르다. 이들은 어디 까지나 주의 몸 된 교회, 즉 성도들을 세워 나가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당회는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는데 장로 2 명이 안되면 준당회(準堂會)가 된다.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로서 노회의 관할 하에 있으며 노회에서 안수받고 노회의 지도를 받게 되고 장로는 지 교회의 교인들의 대표자로서 당회에서 안수받고 당회의 지도를 받으며 목사나 장로, 집사 등의 직원 선출은 세례교인들이 모인 교인 총회(공동의회)에서 3 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된다.
만일, 지 교회에서 당회원간에 문제가 생기면, 상회인 노회의 지도를 받는데 흔히 노회의 시찰회에서 일을 처리한다. 노회나 대회, 총회에는 이런 일을 대비한 기관들을 두고 있다. 노회는 양자의 소송내용을 모두 정중하게 듣고 공평하게 처리해야 하며 어느 한편의 이익을 두둔해서는 안 된다. 요즘 문제는 여기에서 기인하는데. 노회

Goahead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9 East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in USA
1-201-852-3600 / 1-917-530-1991 / gtstheology@gmail.com

시찰부나 재판국에서 어느 한 편만 유리하게 편을 들어주어 교회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고 결국은 교회 분열이라는 슬픈 결과를 낳게 되는 일이 있다. 만일 교회가 어느 교단에도 가입하지 않고 독립해 있다면 이런 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상회 (上會, higher court) 가 없으니 호소할 곳이 없고 개 교회가 혼자서 처리해야 하니 일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총회가 여럿 모이면 교단 협의회를 만들게 되는데 가령 미국의 보수 장로교단과 개혁교단이 합하여 "북미주 보수 장로교단 및 개혁교단 협의희" (NAPARC)를 1975 년에 만든 것 같은 것이나 비교적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여러 교단 총회가 합하여 1948 년에 화란의 Amsterdam 에서 WCC 라는 세계 교회 협의회를 만든 것은 그 대표적인 예다. 오늘에도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때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WCC 나 그 산하의 NCC 같은 기구는 성경을 바로 믿으려는 NAPARC 와 대립하여 있어서 각자 자기의 길로 가고 있다. WCC 는 회원 교단이 130 여개가 되는데 반하여 보수 개혁교단인 NAPARC 는 7 개에 불과하고 그중에서 CRC 라는 화란계 교단은 자유화되면서 NAPARC 의 정 회원권 (正會員權)을 박탈당하여 CRC 에 속한 많은 한인 회원들은 KCPC (Korean Christian Presbyterian Church) 라는 교단을 창설하여 교회 생활하고 있다. 미국 회원들은 CRC 에서 탈퇴하여 ARC 즉 Allied Reformed Church 라는 교단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머리인 교회는 점점 말씀에서 불순종하게 되어 분열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

교회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창설하시고 또한 필요한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셨는데 그는 왕으로, 교회의 머리로,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으로 백성을 다르시도록 이런 권세를 주셨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맬 권세"와 "풀 권세"를 주었는데 마태복음 16:18 에 보면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용인할 일과 금할 일등을 결정할 권세를 사도들에게 주었고 그 권세는 하나님의 교회에 주셨다는 말이다. 교회의 직원들은 교인들을 통해서 선출하지만 직원들의 권세는 교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1. 교회의 권세의 성질
그리스도가 교회에 부여하는 권세는
가. 영적이다.
교회의 권세는 어디까지나 영적인데 이 말은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만 역사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다스리신다는 말이다.
가령, 집사들의 사역은 대부분 보이는 육적인 일인 반면, 목사의 일은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는 무형적이며 영적인 사역이다. 그러므로 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폭력 사용은 금물이지만 기독교 전체가 악의 세력에 위협을 받을 때는 중세의 십자군 모양으로, 혹은 종교개혁 가들처럼 마땅히 십자가의 군병으로 무력으로 싸워야 한다. 그러나 개 교회에서 행정적인 문제나 금전 문제로 인한 폭력 해결은 금하며 어디까지나 교회의 치리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은혜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권세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 말씀에 의거해서 권세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교회의 권세의 종류
그리스도가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등 3 중직을 갖고 있듯, 교회는 세 가지 중직을 갖고 있다.

가. 가르치는 권세
교회는 진리를 전승받았고 말씀에 나타난 진리를 순수하게 보존하여 대대에 계승하며 불신앙의 풍조와 싸우며 진리를 사수할 엄숙한 책임과 권세가 교회에 있다. 딤전 1:3-4 딤후 1:13, 딛 1:9-11 등이 이를 증명한다. 죄인이 죄를 회개하도록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여 만방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 하는데 고후 5:20 이나, 딤전 4:13, 딤후 2:15 등에서 그런 권세가 있다. 또한 교회는 신앙고백서나 신경(信經)을 만들어서 믿는 도리를 바로 전해야 할 권세가 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목회자들을 양성할 권세가 있다. 딤후 2:2.

나. 치리권.
교회의 치리권은 두가지가 있다.

1) 조정하는 권세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4:33). 교회에서는 모든 일을 질서 있고 정중하게 해야 하는데 교회를 다스릴 규정을 제정하여 주셨다.
2). 교회는 권징의 권세를 주었다. The church has given the power to discipline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권징을 행해야 한다. 마태 16:19, 마 18:18, 요 20:23, 고전 5:2, 7, 13, 고후 2;5-7

다. 구제의 권세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말씀을 전하면서 귀신을 내 쫓는 권세를 주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어서 그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했다. 이런 은사는 성경 완성과 함께 중지되어 오늘에 와서는 주로 빈자를 구제하는 일로 제한되게 되었다. 행 4:34 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알고 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신약에서는 빈자를 구제하는 일을 중요시하고 있으을 본다. 행 11:29, 행 20:35, 고전 16:1-2, 고후 9:1,6-7, 12-14, 갈 2:10, 딤전 5:10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 등 두 가지뿐이다.
1 말씀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인데,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 함이며 새로 오는 어떤 특별한 계시를 말함이 결코 아니다. 흔히들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바른 신앙은 아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서의

말씀은 비단 교회에서만 아니라 어디에 서든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 반면에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은 성례 식을 할 때에 말씀이 동반해야 함으로 그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받는다는 말인데 말씀은 어디서나 증거할 수 있지만 성례 식은 반드시 자격 있는 성직자가 집전할 것이며 또한 성례 식은 교회에서만 되어지는 행사다.

가.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
Pelagius 파 나 18 세기 19 세기의 합리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성령의 도움이 필요 없이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회개의 결과가 온다고 믿는가 하면, 또한 도독폐기론자들 (Antinomians)은 말하기를 성령의 도움만 있으면 된다고 가르치는데 외부로부터의 말씀 선포는 필요 없고 내부에서 나오는 음성, 내부의 빛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은 말씀은 성령의 도구이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죄인을 회개시키는 역사를 가져올 수 없다고 가르친다. 말씀은 성령의 역사와 같이 역사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

나.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율법과 복음을 서로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율법이 없이 복음을 알 수 없고 복음이 없이 율법을 알 수 없다. 율법은 우리가 복음을 믿을 것을 말하고 있고, 복음은 구약의 율법이 우리 생활에서 성취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율법과 복음 혹은 은혜의 관계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율법이 없이는 죄인이 죄인 된 것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복음의 필요성을 모른다. 신약성경에서 율법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은 다음 신약구절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마태 5;17-19, 롬 13:10, 엡 6:2, 야고보서 2:8-11, 요일 3:4

다. 율법의 역할
이 세상에서 죄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지만 그 보다도 크게 세 가지를 하는데 첫째,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해 준다. 로마서 3:20 을 보십시오. 둘째, 그래서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깨닫고 몽학 선생인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나아가게 해 준다. 갈 3:24. 셋째, 생활의 길잡이를 제공해 준다. 율법은 우리가 살아 갈 생활의 법칙이다.

라. 복음의 역할
구약의 율법이 제시한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으로 밝히 보여주는 구실을 하며 죄인에게 믿음과 회개로 그리스도에게 나아 오라고 권면하며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모든 구원의 축복을 약속해 주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이다.

2. 성례 2. Sacraments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라고 했는데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 성례를 보아야 한다. 천주교에는 성례의 종류가 영세(세례), 견진, 미사, 혼인, 신품, 고해, 종부 등 일곱 가지다. 그러나 성경적인 성례는 두 가지뿐이다. 세례 와 성찬 등 두 가지다. 세례는 구약의 할례에 해당하는 것이며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Goahead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9 East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in USA
1-201-852-3600 / 1-917-530-1991 / gtstheology@gmail.com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양피를 베어 할례 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징표다. 아브라함은 그 양피를 베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를 보여 준 것뿐이다. 애급의 장자들이 죽던 그 날 밤, 이스라엘백성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한 사람도 인명의 손실이 없이 보존되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한다.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것은 문설주의 양의 피를 보았기 때문인데 양의 피가 무슨 대단한 위력이 있어서 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 유월절을 대신하여 신약시대에는 성찬식을 행한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생각하며 더욱 더 믿음을 돈독히 하여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 고린도전서 11 장에 나타 난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옷깃을 여미고 주님에게 충성하려는 각오를 더 하는 마음으로 떡을 받는다. 또한 잔을 받는다.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성찬식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떡과 포도즙이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이를 화체설 (化體說 transubstantiation) 이라고 한다. 성찬식 할 때 마다 예수 님이 죽는다고 이들은 가르친다. 그러나 주님은 “단번에 (單番)에 자기 몸을 드렸다” 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은 여러 번 드릴 것을 한 번으로 대신했다는 말이다. 구약에서는 같은 제사를 여러 번 되풀이해서 드렸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루터 파에서는 성찬식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이 성찬상에 공존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공존설(共存說 consubstantiation) 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혁파에서는 신비설(神秘說) 혹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한다. 즉 성찬식 때 “떡과 잔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스럽게 연합된 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혜가 임한다” 고 가르친다. 이것을 신비설이라고 한다. 성찬식에는 개방식과 폐쇄식이 있다. 어느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 사람들이라고 교파에 관계없이 모두 참여하도록 한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 즉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만 참여시킨다. 이를 폐쇄적 성찬식이라고 한다. 개혁파 교회는 대부분 폐쇄적인 성찬식 제도를 택하고 자유주의 교회에서는 개방식 성찬식 제도를 택한다. 성찬식은 은밀한 죄를 짓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본 교회 세례 교인이라도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1 장을 보면 분별하지 못하고 즉 준비 없이 성찬식에 참여했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경종을 울려 준다.

세례란? 소속교회의 목사가 베푸는 의식인데 속 사람이 중생한 것을 겉으로 나타내 주는 표에 불과하다 그것 자체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세례를 받는 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거짓으로 신앙 고백하여 세례를 받아도 그 세례는 아무 효과도 없으며 아무런 축복도 없게 된다. 침례교에서는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 이유는 아직도 믿는 도리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파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근거는 창세기 17 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 와도 언약을

Goahead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9 East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in USA
1-201-852-3600 / 1-917-530-1991 / gtstheology@gmail.com

맺은 언약의 백성이므로 그 말씀에 근거하여 부모 중 어느 한 분만 믿어도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이때 부모는 하나님 앞과 회중 앞에서 그 어린이를 위해서, 또 그 어린이와 함께 기도할 것을 서약하며 그 애가 15 세가 되어 물정을 알게 되면 다시 회중 앞에서 와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을 확증하게 되는데 이를 입교(入敎, confirmation)라고 한다.
세례는 반드시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속사람이 중생했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성례식은 모두 성직자가 집례하며 성직자가 아닌 분이 집례할 수 없다. 옛날 1880 년대 영국에서 출현한 세대주의의 창시자 John Nelson Darby 라는 사람은 Plymouth Brethren 이라는 형제교회를 만들어서 기성교회의 모든 체제를 부인하여 교인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성찬식을 베풀었는데 이는 비 성경적이다. 오늘의 세대주의는 이를 시정하여 개 교인이 집전하는 폐단을 시정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교회론에서 이단들
① 몬타누스주의(Montanism): 몬타누스는 직통계시에 입각한 예언활동을 하면서 교회의 세속화와 제도화에 강한 반발 운동을 전개한 이단이다. 이들은 죽은 자에게도 세례를 베풀었고 성령의 영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기성교회와의 분리 추구로 인해 오히려 교권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
② 도나투스주의(Donatism): 이들은 교회의 엄격한 권징과 순수한 교회원의 자격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 무가치한 성직자를 거부했다. 또한 박해에 의해 배반했다가 돌아온 성직자들에 의한 성례를 거절했다. 그리고 자기들 교파에 들어오는 자는 세례를 다시 받게 하였고 기성교회를 거부하고 자기들 만이 참교회라고 했다.
③ 몰몬교: 몰몬교는 세례 요한이 죽은 후 1830 년까지만 교회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 이후에는 오직 자신들의 성례만이 유효하다고 가르친다.
④ 안식교: 자기들 교회를 '남은 교회(Remnant Church)'라 한다. 자기들의 지도자였던 엘렌 G. 화이트 여사에게 예언의 영이 임했다고 하며 자기들 만이 구원을 받는 마지막 시대의 참 교회라고 주장한다. 자기네 나름의 기본 신앙고백 외에 '제 7 일 안식일'과 예언의 영과 남은 교회와 십일조 등에 대한 신앙고백을 해야 하며, 침례를 원칙으로 한다. 성찬식은 세족식을 한 후 시행한다.
⑤ 여호와의 증인: 이들은 기성교회의 신도들은 악마의 추종자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자신들 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14 만 4 천 명에 속하며 천국과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병역을 거부하는 등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단절한다.
⑥ 교회 밖의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밖의 구원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통신학의 입장은 단호하다.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리고 교회 밖의 구원도 없다. 물론 이 교회는 무형교회를 말함이다. 그러나 유형교회도 구원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일부 그릇된 사람들은 유형교회를 부정하다가 교회 자체 곧 무형교회마저 부정하기도 한다.
무교회주의자들은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유형교회가 무슨 소용이냐는 태도를 가지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제도권 교회가 비록 마음에 들지

Goahead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9 East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in USA
1-201-852-3600 / 1-917-530-1991 / gtstheology@gmail.com

않는다 하더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 자체를 떠나서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교회론에서 이단들의 특징
① 자기들 만이 마지막 시대에 선택 받고 구원받은 무리라고 한다.
--> 모든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
② 기성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요 사탄의 세력이라 한다.
* 자기들만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한 교리들이 있다. 예) 144,000 명 구원관, 특별한 결혼관 등
* 자기들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본적인 윤리 마저도 초월하도록 가르친다.
* 특정 지방 교회만을 인정하는 배타성을 가지기도 한다.
③ 2 천 년 교회의 역사성과 전통을 부정하며 자기들이 대체했다고 한다.
④ 2 천 년 교회의 역사성과 전통을 자기들 만이 계승했다고 주장한다.
⑤ 제도적인 교회를 전면 부정하거나 제도적 교회만을 강조한다.
⑥ 지나치게 성례에 집착하든지 성례 폐지를 주장하든지 한다.
⑦ 세례는 주로 침례만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⑧ 자기들에게 가입하려면 세례를 다시 받도록 한다.

(신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김명도신학 연구원장의 주장을 인용했으며, 교회와 신앙에서 주관한 송요한목사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